

金昌協의 산문 批評을 통해 본 글쓰기 방법론

-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의 문제

박경남*

1. 서론
2. 김창협이 제기한 法의 문제와 글쓰기 방법의 전환
3. 金昌協의 批評을 통해 본 '주제 잡기'의 지침
4. 金昌協의 批評을 통해 본 '단락 구성'의 방법
5. 결론

1. 서론

요즘 대학가에서는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대학마다 과목명은 조금씩 달라도 '교양영역'의 하나로 '글쓰기의 이론과 방법'을 다루고, 그러한 이론을 실제적 지침으로 삼아 여러 가지 유형의 '글쓰기를 연습'하는 내용의 강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작문학회'가 발족하여 『작문연구』라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전문적인 작문 이론의 개발 및 대학 글쓰기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¹⁾ 한편, 작문 이론이 주로 외국 이론을 그대로 습득하거나 소화하는 데 머물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고전 문학의 영역에서도 독서와 작문함이 생활의 전부이기도 했던 옛 문장가들의 창작 실천과 비평적 언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후 연구원.

1) 한국작문학회는 2005년 발족한 이후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대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문연구』(2005년 11월 창간)라는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작문 이론 및 현장 글쓰기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로써 작문 이론의 심화와 실제적인 작문 지침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

필자 역시 고전 산문 전공자로서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이후 기회가 닿는 대로 고전 작가들의 산문 창작과 비평을 대상으로, 작문 이론의 심화와 글쓰기 방법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실제로 『古文關鍵』(宋, 呂祖謙)·『古文眞寶』(元, 黃堅)·『唐宋八大家文抄』(明, 茅坤) 등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문인들의 산문 창작과 비평에 하나의 준거점을 제시했던 중국의 문장 선집이나 『文則』(宋, 陳騏)·『文筌』(元, 陳繹曾)·『文章一貫』(明, 高琦) 등 보다 전문적인 散文 修辭學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작문 이론과 지침들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국의 문장 선집 및 수사학서의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산문 창작과 비평에 활용했던 조선 문인들의 산문 비평을 음미해 보면, 이 역시 현재의 글쓰기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작문 지침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본고는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조선 후기 산문 비평의 대가인 金昌協(1651-1708)의 散文 批評을 예로 삼아 구체화시켜 본 것이다.

2) 정우봉, 「漢文修辭學 연구의 한 방법: 主客法의 이론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 49집, 2004;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작문연구』 창간호, 2005; 강혜선, 「조선후기 小品文과 글쓰기 교육: 申靖夏의 尺牘과 편지쓰기」, 『작문연구』 제5집, 2007; 심경호,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제5집, 2007. 한편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글쓰기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최귀목, 「金時習 글쓰기 방법의 사상적 근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도 있었지만, 이 논문은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유형의 관련성을 탐구한 것으로, 작문 이론이나 글쓰기의 실제적 방법에 관심을 둔 연구는 아니었다. 고전 작가들의 글쓰기뿐 아니라 전통시대의 과거 제도 및 문체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글쓰기 방법에 대한 모색은 ‘국어교육’의 한 부분으로 ‘작문교육’을 연구해왔던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1996; 김성룡,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창간호, 1997; 이지호, 「燕巖 朴趾源의 글쓰기 方法論 研究: 《熱河日記》의 대상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논문, 1997;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논문, 2002 참조. 이 밖에 글쓰기에 대한 연암 박지원의 생각을 소설적으로 풀어 쓴 책인 설혼·박현찬,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 예담, 2007도 출간되어 고전을 활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모색이 ‘전공’과 ‘강단’의 협소한 틀을 넘어 대중적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김창협이 제기한 法의 문제와 글쓰기 방법의 전환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 조선 후기 산문사에서 김창협은 문장 수사학과 관련된 ‘法’의 문제를 조선 문단에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자신의 산문 비평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이다.³⁾ 물론 그 이전에 許筠(1569-1618)과 張維(1587-1638)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篇章句法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⁴⁾ 李植(1584-1647)과 金錫胄(1634-1684) 등이 『大家意選批評』과 『古文百選』이라는 문장 선집을 만들며 작품마다 문장 작법과 관련된 간략한 비평을 남긴 바 있다.⁵⁾ 또한 김창협이 자신의 비평적 관점을 정립하는 데 상당 부분 빚지고 있는 明代의 문인 茅坤(1512-1601)의 『唐宋八大家文抄』에도 韓愈·歐陽脩·曾鞏 등의 唐宋 작가의 개별 작품에 대한 文章作法 차원의 비평적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방대한 문장 선집을 만들고 그렇게 선별해 모은 개별 작품마다 짤막하지만 다수의 평을 남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김창협의 비평적 작업은 茅坤·李植·金錫胄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록 거론하는 작품은 적을지라도, 모범이 될 만한 소수의 작품을 예로 들어 作文의 妙法을 설명하는

3) 송혁기, 「김창협 비평의 산문사적 의의: ‘法’의 산문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 2004 참조.

4) “客曰: ‘子之文既平易流便, 其所謂法古者, 當於何求之?’ 余曰: ‘當於篇章法字法求之. 篇有一意直下者, 或鉤連筌者, 或節節生情者, 或鋪叙而用冷語結者, 或委曲繁瑣而有法者. 章有井井不紊者, 有錯落而不雜者, 有若斷而承前繼後者, 有極冗有極短者, 有說不了者. 自有響處幹處伏處收拾處, 疊而不亂處, 強而不努處, 引而不費力處, 開闔處, 呼喚處. 字不亮則句不雅, 章不妥則意不瀟, 二者備而乃可以成篇.’”(許筠, 「文說」, 『惺所覆韻稿』 卷12), “凡作文之體, 篇章句字, 各有法則. 合字而爲句, 合句而爲章, 合章而爲篇.”(張維, 「谿谷漫筆」 卷1) 이 두 글의 의미와 산문 이론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정우봉, 「朝鮮後期 散文理論의 展開와 그 性格(1)-16세기 말-17세기 초 중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2000, 161-166면 참조. 許筠의 「文說」의 산문 수사학적 의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명관, 「허균 <문설>의 신해석」, 『안쪽과 바깥쪽』, 소명, 2007 참조.

5) 李植의 『大家意選批評』(『澤堂先生遺稿刊餘』 권17, 규장각본)과 金錫胄의 『古文百選』(장서각본 등 다수)은 조선인의 손에 만들어진 이른 시기의 平點 批評書로, 17세기 산문 비평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金錫胄의 『古文百選』에 대한 연구 및 그에 대한 개괄은 김광년, 「息庵 金錫胄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2003, 1-23면에 잘 정리되어 있다. 李植의 『大家意選批評』은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70면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산문 비평 연구자들 사이에서 간략히 언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그 구체성과 실증성의 측면에서 보면, 『雜識』外篇에서 펼치고 있는 김창협이 산문 批評이 『唐宋八大家文抄』·『大家意選批評』·『古文百選』의 짤막한 評語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명료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김창협이 강조하고 있는 作文의 妙法이 무엇인지 검토함을 통해 산문 글쓰기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글은 司馬遷과 班固 등 문장의 典範이 되는 작가들에게 배워야 하는 글쓰기의 妙法이 무엇인지 김창협이 간략히 언급하는 대목으로, 우선 이 글을 분석함으로써 김창협이 강조하는 古文의 法, 혹은 古人들의 作法이 무엇인지 음미해 보면서, 아울러 그가 문장 작법을 강조하고 있는 구체적 맥락과 비평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王世貞은 스스로 司馬遷과 班固를 배웠다고 하지만, 그가 쓴 碑誌의 叙事는 두 사람의 글을 극력 모방하는 것이었으니, 마치 古人을 追隨하는 듯하지만 그 實은 宋의 歐陽修와 王安石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지금 歐公의 碑誌文을 읽어보니 그 핵심[綱領]을 끌어내고 단락을 배치[錯綜關節]함에 글마다 法이 있다. …(중략)… 왕세정은 핵심을 끌어내고 단락을 배치하는 古人들의 妙法을 알지 못한 채 다만 字句만을 따르고 摸擬하였다. …(중략)… 그 스스로 정채롭고 생기있다고 여겼던 부분⁶⁾이 司馬遷과 班固의 字句를 끌어다 수식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니 어찌 古人의 妙法을 함께 의논할 수 있겠는가?⁷⁾

김창협이 王世貞(1526-1590)등 明代 擬古派의 문학을 對他的으로 인식하며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적되어 온 바이다.⁸⁾ 윗글은 그 중 왕세정의 碑誌文에 대한

6) 정채롭고 생기있다고 여겼던 부분: 원문은 “風神景色”이다. ‘風神’과 ‘景色’은 그림이나 글에 대한 비평 용어로 자주 쓰이는데, ‘風神’은 주로 ‘인물’의 風貌가 살아 있는 사람처럼 생기롭고 생동감이 넘칠 때 사용되고, ‘景色’은 그림 속의 ‘경치’나 ‘자연’이 실제처럼 생동하거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정채를 띠 때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7) “王弇州自謂學班·馬，其爲碑誌叙事，極力摹畫，若將以追踵古人，而其實遠不及宋之歐·王。今讀歐公諸碑誌，其提挈綱領，錯綜關節，種種有法。…(중략)… 弇州不知古人提挈錯綜之妙，而只欲以句字，步趣摸擬。…(중략)… 其所自以爲風神景色者，不過用馬字班句，緣飾傳會耳。此何足與議於古人之妙哉。”(『雜識-外篇』 第7則, 『農巖集』 卷34, 한국문집총간 제162권 373면, 이하 『雜識-外篇』의 인용은 출전은 생략하고 간단히 ‘第○則’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김창협이 비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 인용문에서 김창협은 明代 王世貞과 宋代 歐陽脩의 산문 창작을 대비시키면서, 그들이 文章의 典範인 사마천과 반고를 배우는 방법이 현격히 달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창협에 따르면 왕세정은 “古人을 追蹤하는 듯하지만” 그가 사마천과 반고에게 배운 것은 다만 그들의 “字句만을 따르고 摸擬”하는 것이었다. 반면 구양수가 두 古人의 문장에서 배운 것은 그들의 作文法이었다. 그러니까 왕세정은 온 정력을 다해 『史記』와 『漢書』를 열심히 익힌 후, 그 책에서 “사마천과 반고가 쓴” 훌륭한 “어휘나 구절”들을 “끌어다 수식”함으로써 자기 글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했다면, 구양수는 사마천과 반고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소재가 된 대상 인물의 “핵심을 끌어내고”, 그 핵심이 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단락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배워 이를 자신의 글쓰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왕세정이 『史記』 등의 古典에서 字句를 차용한 것이 김창협의 말처럼 模擬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인지, 아니면 고전의 字句를 빌려와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인지는 왕세정의 작품을 실제로 분석하며 새롭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그 비판의 적실성이야 어찌되었든, 김창협이 이 글에서 왕세정과 구양수의 창작 방법을 대비시킴으로써 典範을 익히고 사용하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윗글에서 왕세정을 폄하하고 구양수를 높이는 것으로 보아, 古典을 학습하는 목표가 전범이 되는 작가들의 훌륭한 몇진 표현을 빌려오는 데 있기 보다는, 고전 작가들이 ‘주제를 立案하고’ 그 주제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단락을 배치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도 어렵지 않게 간취할 수 있다.

8) 이는 김창협의 문학론을 다룬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의 문학론 전반을 다룬 연구로는 조종업, 「농암시론연구」, 『민태식박사 고회기념 유교학논총』, 1972; 강혜선, 「金昌協 古文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90; 채환중, 「農巖 金昌協 文學研究」, 忠南大 박사논문, 1994; 송혁기, 「金昌協 文學論의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96; 강명관, 『농암잡지평석』, 소명, 2007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 나온 강명관의 저서는 『農巖雜識』 外篇의 모든 조목에 대한 치밀하고도 꼼꼼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본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윗글에서 김창협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물론 王世貞의 碑誌文이긴 하지만, 「雜識」 外篇의 여러 글들을 종합해서 읽어 보면, 김창협이 위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범 학습과 글쓰기 방법상의 문제점은, 비단 왕세정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碑誌文에만 제한되어 논의될 문제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상 김창협은 인용한 윗글의 바로 앞 두 조목에서 明人은 물론 朝鮮의 선배 작가들이 典據를 잘못 인용하는 用事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고,⁹⁾ 또 다른 조목에서는 漢詩 창작에서 주의해야 할 用事상의 잘못된 예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¹⁰⁾ 이로 보면 김창협의 비판은 왕세정 등 명대 의고파의 詩文 창작에 국한된 문제이기 보다는 明과 朝鮮을 포함해 당시까지 별다른 반성 없이 통용되어 왔던 詩文 창작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그와는 관점과 태도상의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李夢陽·王世貞 등 明代의 前後七子가 제창했던 시문 창작의 모토는 當代人들 사이에서 흔히 “詩必盛唐, 文必秦漢”이라는 구호로 요약되었던 바, 이는 盛唐 이전의 詩들과 秦漢 이전의 고문을 典範으로 삼아 그에 대한 암송에 가까울 정도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古詩·古文的 氣勢나 格調를 체득하고, 아울러 고전 문장의 어휘들을 자신의 창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을 요구한 것이었다. 실상 왕세정 등 명대 전후철자의 立論과 문학적 성취는 단지 ‘자구상의 模擬’로 간단히 비판될 성질의

9) “孔子曰: ‘喪與其易也, 寧戚.’ 後人作碑誌文字, 言人善居喪, 類多云: ‘戚易咸備.’ 其意, 盖曰: ‘禮文與哀痛俱備也.’ 然聖人之意, 正以易爲病, 而寧有取於戚. 故朱子訓之曰: ‘易, 治也. 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也. 戚則一於哀而文不足耳.’ 此二者, 正自相反, 豈容兩兼耶? 且如夫子云: ‘與其奢也, 寧儉.’ 今若曰: ‘奢儉俱備.’ 則成何義理文字耶? 然先輩文字中, 用此語甚多, 恐一時偶然失誤, 而承襲用之, 不復深察也. 又意此語之誤, 恐始於明人, 歐·王碑誌中無此語.”(第5則); “又碑誌文字襲謬可笑者, 無如易簣二字. 夫易簣固聖賢正終之事, 然曾子之簣, 乃季孫之賜, 非禮之物, 故易之, 所以爲正終也. 夫人安得皆有季孫之簣, 而必於將死焉易之耶? 文章家用事, 固多此類.”(第6則)

10) “至李于鱗輩作詩使事, 禁不用唐以後語, 則此大可笑. 夫詩之作, 貴在抒寫性情, 牢籠事物, 隨所感觸, 無乎不可. 事之精粗, 言之雅俗, 猶不當揀擇, 況於古今之別乎. 于鱗輩學古, 初無神解妙悟, 而徒以言語模擬, 故欲學唐詩須用唐人語, 欲學漢文須用漢人字, 若用唐以後事, 則疑其語之不似唐. 故相與戒禁如此, 此豈復有眞文章哉!”(第24則); “長安本關中一小縣也. 漢唐時都此, 故遂爲京師之稱. 明之京師, 乃燕地也. 何得復以關中一小縣之名稱之乎? 凡詩文用事, 有可假借者, 而惟地名不可.”(第37則)

것은 아니었지만, 明代의 唐宋·公安派나 朝鮮의 김창협 등 前後七子를 비판했던 이들은 李夢陽·李攀龍 등의 몇몇 과도한 언술과 창작상의 한 측면을 문제삼아 이들을 단지 秦漢·盛唐 이전 詩文의 어휘와 구절을 모방한 擬古의 문인으로 폄하하며, 자신의 새로운 입론을 그와 마주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에 포괄될 수 없는 전후칠자의 문학적 성취들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협 등의 비판을 통해 고전의 字句를 끌어와 자기 문장을 수식하는 창작 방법이 자칫 創新 없는 模擬에 그칠 수 있고, 또한 原텍스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속에 잘못된 표현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고전의 字句를 가져와 자기 문장을 수식”하는 창작방법은 흔히 ‘用事’로 불리는, 고전 시대의 시인·문장가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修辭의 한 방법이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김창협이 지적하고 있는 ‘자구 模擬’란 실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지 못한 ‘실패한 用事’ 혹은 자구의 의미나 문맥에 걸맞지 않은 ‘잘못된 用事’의 부정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는 秦漢 고문을 선호하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唐宋 작가를 선호하는 문인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까닭에 金昌協이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字句 模擬’의 문제는 秦漢 古文에서 唐宋 古文으로 그 典範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김창협은 “시는 마땅히 唐詩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唐詩에서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기도 하고,¹¹⁾ 盛唐 이전의 詩를 높이는 명대 의고파의 관점이 “師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¹²⁾고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산문에 있어서도 唐宋古文的 대표자인 韓愈·歐陽脩 보다 史記·漢書 등의 진한고문이 더욱 읽을 가치가 있음을 거리낌 없이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¹³⁾ 이로 보면 김창협이 실제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전범이 되는 학습대상을 ‘진한고문’에서 ‘당송고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간단히 알 수 있다. 당대인들의 글쓰기와 관련해

11) “詩固當學唐. (...) 唐人之詩, 主於性情興寄, 而不事故實議論, 此其可法也.”(第15則)

12) “獻吉勸人不讀唐以後書, 固甚狹陋. 然此猶以師法言, 可也.”(第24則)

13) “經典以外, 惟『史』、『漢』尙堪多讀, 其餘雖韓歐文, 亦不耐數十讀.”(第127則)

서 김창협이 진정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고전을 배우는 ‘학습 방법’과 그것을 활용하는 ‘글쓰기 방법’ 자체에 있었던 것이다.

김창협은 詩 창작의 한 방법으로 오랜 동안 문인들 사이에서 愛用되고 公認되어 왔던 ‘用事’를 통한 ‘典範의 계승과 재창조’라는 作詩의 修辭學이 碑誌文 등 산문 글쓰기에도 무분별하게 誤·濫用됨으로써 글쓰기 자체를 誤導하고 있음¹⁴⁾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비지문등 散文 창작에서 用事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의 사용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야함을 강조하는 한편,¹⁵⁾ 司馬遷과 班固 등 산문의 전범을 통해 배워야 할 글쓰기의 妙法이 대상의 핵심을 파악하여 주제를 立案하고, 그 주제를 부각시킬 효과적인 단락 구성에 있음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김창협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모범이 될 만한 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실제 비평함으로써, 고전의 字句를 빌려오는 用事 차원의 典範의 계승과는 구별되는, 글 전체의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과 관계된 篇章 차원의 典範 계승의 방법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16·17세기 전반기의 문인인 許筠·張維·李植과 明代의 茅坤이 시와 구별되는 산문의 특성을 이해하고 字句뿐 아니라 篇章차원의 수사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었다면,¹⁶⁾ 그들의 후배 세대인 17세기 말의 문인 김창협은 이들의 立論을 계승하면서도 詩作과 구별되는 산문 글쓰기의 또 다른 방법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김창협은 「잡지」 외편에서 사마천의 傳과 구양수의 碑誌文을 실제 비평함으로써 典範的 글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作法과 文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니,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김창협이 배우고자 했던 典範의 지침과 글쓰기 방법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14) 가령, 각주 9)에서 지적한 ‘威易咸備’·‘易實’의 사례는 김창협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 비지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用事 誤·濫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15) “至於碑誌文字, 其體本自謹嚴, 凡叙履歷生卒, 惟當據實直書, 不必引用古語, 雖或用事, 亦須詳審的當, 且如啓體易箴, 皆曾子事, 然啓體人皆可用, 而易箴則非人人所可用。”(第6則)

16) 이에 대해서는 정우봉, 「朝鮮後期 散文理論의 展開와 그 性格(1)-16세기 말-17세기 초 중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2000 참조.

3. 金昌協의 批評을 통해 본 ‘주제 잡기’의 지침

앞 장의 서술에서도 간략히 거론되었긴 하지만, 김창협이 사마천과 구양수의 글에서 주목했던 글쓰기의 방법은 “提挈綱領”과 “錯綜關節”로 이를 오늘날의 작문 용어로 번역한다면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에 해당하는 말이라 하겠다. “綱領”이란 ‘그물코를 꿰어 놓은 줄’인 ‘벼리’[綱]와 ‘저고리의 목을 감싸는 부분’인 ‘옷깃’[領]의 합성어로, ‘벼리’와 ‘옷깃’을 들어 올리면 그물과 옷 전체가 따라 올라오는 법이니, 이를 글쓰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작문 용어로서의 “綱領”이란 “어떤 대상의 전모를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提挈綱領”이란 바로 어떤 “대상의 핵심을 끌어내는 것”이니 이는 곧 글의 대상이 된 사물·인물의 핵심을 포착해서 드러내 보이는 ‘주제의 설정’과 관련된 말이라 하겠다. “錯綜關節”에 보이는 “關節”은 잘 알고 있듯 우리 몸 속에 있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뼈마디’로, 곧 일정한 길이의 뼈를 서로 구분하게 해주면서도 또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니, 글쓰기에서는 “각 단락과 단락을 구분시켜 주면서도 또한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고리”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農巖의 아우 三淵 金昌翁(1653-1722)은 『信陵君傳』에 사용된 네 개의 ‘聞’字를 예로 들어 글쓰기에서의 ‘關節’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바, 그것은 단락간의 전환을 보여줌과 동시에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주는 ‘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단락은 이 ‘관절’로 인해 서로 구분되면서도 단락간의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¹⁷⁾ 따라서 “錯綜關節”이란 “關節” 자체를 엮어맨다기 보다는 그 관절로 인해 구분되는 “각 단락을 엮어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곧 작자가 설정한 주제에 따라 글의 ‘통일성’과 ‘긴밀성’을 유지하며 “각 단락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¹⁸⁾ 요약하면, 김창협이 말하고 있는

17) “秦聞公子在趙，日夜出兵，東伐魏，此可見公子氣焰斤兩，大段可畏。諸侯聞公子將，各遣將救魏，破秦軍而走蒙驁，及秦聞公子死，使蒙驁伐魏，拔二十城，公子生死，有關於宗社興亡，有如此結之以高祖聞公子賢，每過常祀，置守塚五家，前後四聞字，亦須看他關節。”(『漫錄』, 『三淵集』卷 36, 총간 166-176) 강조는 인용자.

18) ‘提挈綱領’이 ‘주제의 설정’과 같은 말이고, ‘錯綜關節’이 ‘단락의 안배’와 관련된 기법임은 강명관, 위의 책, 42-47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필자의 ‘提挈綱領’과 ‘錯綜關節’에 대한 풀이

글쓰기 방법으로서의 “提挈綱領”과 “錯綜關節”이란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에 관계된 것으로, 현대적 글쓰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작문의 기본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산문 창작에 관한 김창협의 비평적 언술을 토대로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에 관한 그의 생각을 再構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글쓰기에도 지침이 될만한 내용들을 추출해보기로 하자. 먼저 ‘주제 잡기’와 관련된 김창협 언술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古人들은 大體에 상세한데, 明人들은 小事에 상세하다. …(중략)… 兪州가 지은 商販婦女誌傳은 그 대상 인물이 자질구레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글이 특하면 수백 수천 글자나 되니 여기에서 그 공교로움과 졸렬함의 차이를 알 수 있다.¹⁹⁾

歐陽脩의 「王文正碑」는 오로지 ‘재상으로서의 업적」[相業]만을 기술하였고, 「胡安定表」는 오로지 ‘스승으로서의 도리」[師道]만을 서술하였으며, 「梅聖俞誌」는 오로지 詩學만을 서술하였다. 다른 일과 행적은 모두 생략하였으니 그 서술함이 이와 같이 요령이 있었다.²⁰⁾

첫 번째 인용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兪州가 지은 商販婦女誌傳”이란 곧 商人和 商婦를 대상으로 한 王世貞의 墓誌와 傳을 가리킨다. 왕세정의 문집인 『兪州四部稿』와 『兪州四部續稿』에는 실제로 ‘장사꾼과 그 부녀자들」[商販婦女]에 관한 다수의 묘지와 전이 수록되어 있는데²¹⁾ 김창협은 그것

는 강명관 교수의 상세한 해설에 공감하며 그 내용을 다만 필자 나름의 언어로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19) “古人之詳，詳於大體，明人之詳，詳於小事，…(중략)… 兪州作商販婦女誌傳，其人瑣瑣無足記，而其文動累百千言，此可見工拙之辨也。”(第8則)

20) “歐文「王文正碑」，專叙相業，「胡安定表」，專叙師道，「梅聖俞誌」，專叙詩學。他事行皆略之，其叙事有體要如此。”(第138則)

21) 필자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四庫全書本 『兪州四部稿』(全174卷)에는 碑誌文이 모두 85편이고, 이 중 상인 대상 비지문은 13편(墓誌 7편, 墓表 4편, 神道碑 1편, 墓碣銘 1편)이었다. 또 『兪州續稿』(全207卷)에는 모두 241편의 碑誌文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상인 대상 비지문은 35편(墓誌銘 31편, 墓表 3편, 神道碑 1편)이다. 따라서 碑誌文만을 대상으로 하면, 왕세정은 총 326

을 보고 윗글에서 한 마디로 ‘졸렬하다’·‘서툰다’[拙]는 평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김창협이 보기에 왕세정의 글은 ‘소재 선택’과 ‘문장 서술’의 측면에서 모두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질구레한” 인물을 글의 소재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쓸데 없는 제재에 “수백 수천 글자”를 낭비하며 ‘장황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세정의 글이 그렇게 된 근본적 이유는 첫 번째 인용문의 冒頭에서 말하고 있듯, 그가 古人들이 중시했던 ‘大體’에는 소홀하고, ‘小事’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大體’는 글의 대상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어떤 사물·인물의 근간이 되거나 핵심적인 면모’를 가리킬 터이다. 따라서 글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大體’를 아는 이들은 마땅히 가치의 輕重을 따져 소재 선택에서부터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인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왕세정은 김창협이 보기에 별로 기록할 가치도 없는 상인들을 택했으니 글쓰기가 ‘서툰’ 것이다. 또한, 그 서술에 있어서도 ‘大體’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상인물의 핵심적 면모를 드러내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에 맞추어 대상의 어떤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하는데, 왕세정은 별다른 주제 의식도 없이 소소한 일들을 지루하게 늘어 놓고 있으니 김창협이 보기에 이 역시 글쓰기가 ‘서툰’ 것이다. 김창협은 이처럼 大體를 아는 것, 곧 사태의 근간이나 전체를 규정짓는 핵심을 파악해 그것을 주제로 삼는 ‘주제 선정’의 과정이 곧 글쓰기의 ‘소재 선택’과 ‘문장 서술’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 작가의 글쓰기가 어떤 대상의 ‘핵심이 되는 골간’[大體]을 포착하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 ‘적절치 못한 소재 선택’과 ‘초점 없는 서술’로 이어져, 글이 전체적으로 졸렬해질 수밖에 없음을 왕세정을 예로 들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인용문에서 김창협은 대상인물의 핵심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주제로 삼아 그 주제에만 집중하는 글쓰기를 보여준 구양수의 몇몇

편의 碑誌 작품 중 48편의 상인비지문을 제작했는데, 이는 대략 7편당 1편꼴(48/326 ≈ 1/7)로 상인비지문을 쓴 것이다. 왕세정의 상인비지문의 실상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拙稿, 「金昌協의 비판을 통해 본 王世貞 散文의 진면목-商販 碑誌文을 중심으로」, 2009년도 한국한문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9. 12 참조.

작품을 거론하고 있다. 즉, 김창협에 따르면 구양수는 王文正碑, 「胡安定表」, 「梅聖俞誌」에서 글의 대상이 된 王旦·胡瑗·梅聖俞의 가장 핵심적 면모를 재상·스승·시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걸맞게 그들 각각의 묘지문에서 그들의 相業·師道·詩學만을 오로지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구양수는 송대의 저명한 정치가인 왕단의 신도비를 쓸 때에는 그 사람의 핵심적 면모를 ‘宰相’으로 파악해서 다른 일은 간략히 하고 오로지 재상으로서의 업적만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고, 마찬가지로 호원의 핵심적 면모를 교육자로 파악해 그의 師道만을 부각시켰으며, 매성유는 시인이니 그의 詩學을 주제로 삼아 그 부분만을 오로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위 두 글을 통해 김창협은 대상의 핵심을 포착하는 ‘주제 잡기’의 중요성을 간략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주제 잡기’와 관련된 김창협이 비평적 언술을 살펴보았거니와, 그가 강조하고 있는 作文法의 구체적 지침을 강령화하는 것으로, 본 장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을 주제로 삼아라.
- 둘째. 자신이 선택한 소재가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점검하라.
- 셋째. 하나의 주제가 뚜렷이 부각되도록 서술을 조직하라.

4. 金昌協의 批評을 통해 본 ‘단락 구성’의 방법

앞 장에서는 김창협이 산문 비평을 통해 대상의 핵심적 측면을 포착하는 ‘주제 선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거니와, 이 장에서는 글의 전체 주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락 구성’과 관계된 김창협이 세부적 언술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에 관한 김창협이 비평적 언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歐公의 碑誌文을 읽어보니 그 핵심을 끌어내고[提挈綱領] 단락을 배치[錯綜關節]함에 글마다 法이 있다. 간명하면서도 갖출 것은 갖추었고, [簡而能該] 상세하면서도 번잡하지 않으니[詳而不繁] 글 뜻은 여유로우면서도 묘사한 상황은 곡진하여 그 풍채와 정신이 生氣를 띠는 곳은 이따금 그림과도 같다. 茅鹿門이 말한 ‘太史公의 精髓를 얻었다’고 한 부분이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²²⁾

司馬遷이 「信陵君傳」에서 ‘侯生을 맞이하는 과정’을 서술한 대목이라든지 「灌夫傳」에서 ‘좌중의 빈객들을 꾸짖는 장면’을 기술한 부분 등은 완곡하고 자세하여 조금도 빼놓은 것이 없다. …(중략)… 「信陵君傳」은 ‘선비를 예우하고 賢者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어려움에 처해 힘을 얻을 수 있다」[禮士下賢, 臨難得力]는 것을 주제[案]로 삼았고, 「灌夫傳」에서는 ‘田氏와 竇氏 두 집안이 恩怨으로 다투는 양상」[田竇兩家, 恩怨傾奪]을 주제[案]로 삼았으니, 侯生을 맞이하거나 좌중을 꾸짖는 부분이 정말로 긴요하고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서술이 상세할수록 더욱 묘미가 있다.²³⁾

첫 번째 글은 앞서 상세히 언급했듯, 歐陽脩의 碑誌文이 “대상의 핵심을 끌어낸 주제를 설정하고”[提挈綱領] “그 주제에 따라 긴밀하게 단락을 배치했음”[錯綜關節]을 말하는 대목이니 따로 덧붙일 내용은 없다. 다만 인용된 첫 번째 글의 뒷부분에 ‘주제’·‘구성’과 관련된 작문법에 주목한 구양수 글쓰기의 연원이 ‘太史公 司馬遷’에게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 있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마천의 실제 작품을 분석하고 있어 그 연관을 보이기 위해 함께 인용한 것이다. 김창협은 두 번째 글에서 사마천의 「信陵君傳」과 「灌夫傳」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바, 이는 곧 사마천의 「魏公子列傳」(『史記』, 卷77)과 「魏其武安侯列傳」(『史記』, 卷107)을 가리킨다. 信

22) “今讀歐公諸碑誌,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而不繁, 意度閒暇, 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 又往往如畫. 茅鹿門以爲得太史公之髓者, 此也.”(第7則)

23) “馬史如「信陵君傳」叙迎侯生, 及「灌夫傳」叙罵坐等處, 曲折纖悉, 毫髮不遺. …(중략)… 「信陵君傳」, 專以禮士下賢, 臨難得力爲案, 「灌夫傳」, 專以田竇兩家, 恩怨傾奪爲案, 迎侯生及罵坐處, 正其緊要關節, 故叙得愈詳愈妙.”(第9則)

陵君이란 戰國시대 魏나라의 公子인 無忌의 封號이니²⁴⁾ ‘魏公子’와 ‘信陵君’은 동일 인물이다. 灌夫는 皇室의 외척들인 ‘魏其侯 竇嬰’과 ‘武安侯 田蚡’의 合傳(魏其武安侯列傳)에 나오는 인물로, 魏其侯 竇嬰이 권세를 잃었을 때에도 한결같이 그를 따랐던 西漢때의 將軍이다. 따라서 김창협이 「灌夫傳」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립된 傳의 명칭이 아니라, 魏其武安侯列傳에 나오는 灌夫에 관한 일을 따로 떼내어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김창협은 두 번째 인용문에서 주인공 信陵君이 “侯生을 맞이하는 대목”(「信陵君傳」·「魏公子列傳」)과 灌夫가 “좌중의 빈객들을 꾸짖는 장면”(「灌夫傳」·「魏其武安侯列傳」)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상 『사기』의 이 두 傳을 처음 읽어보면, 信陵君 및 魏其侯·武安侯가 두 글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侯嬴와 灌夫라는 보조적 인물의 이야기에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고 있어, 제목과 실제 서술이 다소 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성상의 배분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魏公子列傳과 魏其武安侯列傳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느꼈을 이 불균형에 대한 김창협 나름의 설명인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두 열전의 보조 인물인 侯嬴와 灌夫에 관한 이야기를 “남김없이 서술하는”[曲折纖悉, 毫髮不遺] 바로 그 점이 사마천 서사법의 묘미라는 것이다.

김창협은 信陵君傳, 곧 魏公子列傳의 주제를 “禮士下賢, 臨難得力”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실제로 信陵君傳에서 ‘侯生을 맞이하는 대목’은 왕실의 자제로서 고귀한 신분인 信陵君이 한낱 문지기에 불과한 미천한 인물인 侯生²⁵⁾을 극진하게 예우하여 맞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숨은 賢士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여하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이때 맺은 侯生과의 친분 덕택에, 신릉군은 秦나라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趙나라가 도움을 청해 왔을 때 侯生의 계책에 따라 趙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었다. 따라서 信陵君傳 전체를 통틀어 신릉군이 자신을 낮추어 ‘侯生을 맞이하는’ 단락은 김창협의 말대로 “禮士下賢, 臨難得力”이라는 信陵君傳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되는 대목”[緊要關節]이 되며, 그런 까

24) “魏公子無忌者, 魏昭王少子, 而魏安釐王異母弟也. 昭王薨, 安釐王卽位, 封公子爲信陵君.”(「魏公子列傳」, 『史記』)

25) “侯嬴, 年七十, 家貧, 爲大梁夷門監者.”(「魏公子列傳」, 『史記』)

답에 그 “서술이 상세할수록 더욱 묘미가 있다.”[愈詳愈妙] 이와 마찬가지로 魏其武安侯列傳에서 灌夫가 “좌중의 빈객들을 꾸짖는 장면”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魏其侯와 武安侯가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고, 결국에는 灌夫는 물론 魏其侯·武安侯가 모두 파국에 이르게 되니, 이 부분야말로 魏其武安侯列傳의 주제인 “田氏와 竇氏 두 집안의 갈등”의 절정과 그 결말의 직접적 원인을 보여주는 가장 관건이 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부분 역시 마땅히 작가가 혼신을 다해 그 상황을 가장 풍부하고 섬세하게 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결국 김창협은 사마천의 두 작품에 대한 실제 비평을 통해 “주제 전달에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면 그 상황을 “터럭 한끝도 남기지 말고 상세하고 곡진하게 서술하라”[曲折纖悉, 毫髮不遺]는 지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구양수가 쓴 王旦(957-1017)과 范仲淹(989-1052) 두 文正公의 神道碑에 관한 김창협이 비평을 모은 것으로 여기서도 ‘단락 구성’에 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歐陽修가 지은 王旦과 范仲淹 두 文正公의 碑文은 그 글이 이천자를 넘지 않지만, 재상으로서 행한 事業과 그 평생의 큰 絕調를 남김없이 다 묘사했다.²⁶⁾

范文正公은 宋나라 제일의 인물이다. 그가 평생에 행한 일 중에는 후세에 모범이 될만한 것들이 극히 많은데도 歐陽公이 지은 神道碑에는 단지 그 재상으로서의 出處와 事業에 관한 始末의 大綱만을 서술했을 뿐, 나머지 嘉言과 善行들은 모두 생략하였다. 예컨대 義田²⁷⁾과 麥舟²⁸⁾에 관한 일은 古人도 하기

26) “歐陽公作王、范二文正碑，其文不滿二千言，而其作相事業與平生大節，摸寫殆盡。”(第8則)
 27) 義田: 范仲淹이 현달한 후 자신의 俸祿을 모아 고향 蘇州에 負郭田과 常稔田 千畝를 두고 ‘義田’이라고 이름한 후, 그 생산된 곡식으로 궁핍한 宗族들을 구휼하거나 상호부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이 일은 宋나라 錢公輔의 『義田記』에 보이는데, 범중엄이 죽은 후에도 後孫과 親族들이 그 뜻을 받들어 義田을 계속 유지했다고 한다.
 28) 麥舟: 范仲淹의 아들 純仁이 부친의 命으로 蘇州의 고향집에 가서 배에 보리를 싣고 오다가 丹陽에 들러 부친의 친구인 石曼卿을 만났는데, 석만경이 墓地를 마련할 돈이 없어 喪을 치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배와 곡식을 전부 드러 장례를 도운 일을 가리킨다. 범중엄은 아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 행동을 칭찬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惠洪의 『冷齋夜話』등 여러 곳에

어려운 일인데도 神道碑에는 오히려 기록하지 않았다. 그 叙事의 간결하고 엄격함이 이처럼 구차하지 않았다.²⁹⁾

『王文正碑』에서 王묘이 進士에서 翰林學士에 이르기까지의 서술은 겨우 이백자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상이 된 이후의 서술은 거의 천여자에 달한다. 중간에 한림학사에서 樞密院을 거쳐 參知政事가 되는 부분에서는 먼저 그 사람됨의 대략을 써서 ‘재상이 될만한 인품’임을 보였고, 또 錢若水의 말을 인용하여 ‘재상이 될 만한 그릇’임을 증명했으며, 眞宗과 若水가 묻고 답하는 말을 써서 ‘크게 쓰일 조짐’을 보인 연후에야 비로소 그가 ‘재상에 임명된 일’을 썼으니 이러한 서술은 모두 지극한 법을 갖춘 것이다.³⁰⁾

歐陽脩의 문장 중 碑誌文의 叙事는 한결같이 ‘屬辭比事’法을 사용하여 단지 年月의 先後만으로 순서를 삼지는 않았다. 가령, 『王文正碑』는 王묘이 平章事에 제수된 일을 쓴 후에, 곧 왕단이 “재상이 된 사람은 옛일을 힘써 행해야 한다”[其爲相務行古事]고 말한 일을 적고 있고, 다음으로 “재상의 자리에 있는 지 십여 년”[在相位十餘年]이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어진 재상으로 일컬어진다”[至今稱爲賢宰相]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그 대체적인 개요를 총괄하였다. 그 아래에 또 재상이 되어 한 일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니, 하나는 인재를 등용하고 선비를 천거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말수가 적고 침묵하면서도 사태 판단을 잘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왕의 노여움을 잘 풀고 사람의 죄를 분변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매 단락마다 각기 몇 가지 일로 실증하였으니, 왕단이 재상이 되어 한 사업들이 환히 드러나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 보는 것과 같다. 만약 후인들의 叙事처럼 단지 연월만으로 순서를 삼는다면 이런 일들은 앞뒤로 어지럽게 섞여서 나와 그 요점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³¹⁾

전한다.

29) “范文正公，宋朝第一人物也。其平生行事，可爲後世法者，極多，而歐陽公作神道碑，只叙其出處事業終始大節，而其餘嘉言善行，皆略之，如義田及麥舟事，尤古人所難能，而碑猶不載也。其叙事簡嚴，不苟如此矣。”(第11則)

30) “『王文正碑』，自爲進士，至翰林學士，所敘塵二百言，而其敘入相以後，幾千餘言。中間，自翰林學士，歷樞密院，爲參知政事處，先書其爲人大略，以見相品，又引錢若水語，以證相器，又書眞宗與若水問答語，以見大用之兆。然後方書其拜相事，此等具有至法。”(第139則)

앞서 사마천의 작품을 비평하며 김창협이 강조했던 것이 “주제와 관계된 단락은 상세할수록 좋다”는 것이었다면, 구양수 작품에 대한 실제 비평에 서는 그러한 방법과 동시에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간략화’ 시키는 방법을 부각시키고 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김창협은 “王昶과 范仲淹 두 文正公의 碑文”이 “이천자를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에서 밝히고 있듯, 이 두 사람이 宋나라의 제일가는 인물로 후세에 모범이 될만한 많은 일을 남겼음을 상기 하면 오히려 대단히 짧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김창협은 그렇게 된 이유를 구양수가 신하로서의 공적을 찬양하는 神道碑의 성격과 주제를 고려해서, 그들이 재상이 되기까지의 ‘出處’와 재상이 되고나서 행한 ‘事業’의 빛나는 업적의 대강만을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간결하고 엄격한 서술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예를 들면, 범중엄의 경우 “義田과 麥舟에 관한 일”등 아름다운 선행들이 많은데도 구양수는 이들을 다 생략하고 있고, 왕단의 경우에는 재상 이전의 이력에 대해서는 “겨우 이백자 정도”로 짧막하게 요약하고, “재상이 된 이후의 서술”은 “거의 천여자에 달할” 정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양수는 王昶과 范仲淹의 신도비를 쓰면서 그들의 핵심적 측면인 ‘재상’으로서의 면모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제와 관계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축소하고’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세히 서술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비문은 그들의 명성에 비해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비문의 성격과 주제에 걸맞게 “재상으로서 행한 업적”에 포커스를 맞추어, 그 평생의 대강이 “남김없이 다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김창협의 최종 평가이다.

또한 세 번째 인용문의 후반부에서는 왕단이 재상이 되고 난 이후의 서술을 하기 직전에 ‘요약’·‘인용’·‘대화’등의 다양한 서술방식을 동원해서

31) “歐文碑誌敘事，一用屬辭比事之法，不但以年月先後爲次序。如『王文正碑』，書拜平章事’後，卽言‘其爲相務行古事’云云，次言‘在相位十餘年’云云，而結之以‘至今稱爲賢宰相’，以總其大槩。其下又分敘三段，其一用人薦士，其一簡默能斷，其一善解主怒，辨理人罪，每段各有數事以實之，其作相事業，便了然，如指諸掌。若如後人敘事，但用年月爲次，則此等事後先錯出，無以領其要矣。”(第140則)

그가 ‘재상이 될 만한 인품’과 ‘그릇’[相品·相器]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 이미 재상으로 ‘크게 쓰일 조짐’[大用之兆]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각 단락과 문장이 주제를 향해 치밀하게 조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처럼 각 단락과 문장간의 긴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구양수 비지문의 서술들이 모두 지극한 作文의 묘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네 번째 인용문에서는 공자가 말한 『春秋』의 教授法이자 후대에는 고문의 문장서사법으로 활용된 ‘屬辭比事’法³²⁾을 거론하면서, 재상이 된 이후의 왕단의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구양수가 묘지명의 일반적인 서술법인 시간적·순차적 기술을 탈피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 곳에 모아 제시하는 항목별 개괄 및 예시의 방법을 택했음을 밝히고 있다. 김창협에 따르면 「王文正碑」는 王묘이 재상의 직책인 “平章事に 제수된 일을 쓴 후”에, 재상의 임무를 자각하고 있는 왕단의 말과 그가 십여년간 재위했을 동안의 일 및 그에 대한 사람들의 사후 평가를 요약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왕단의 재상으로서의 면모를 먼저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요약 서술 뒤에 재상이 되어 한 일을 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즉, 구양수는 왕단이 재상이 되어 한 일을 ‘인재등용’[用人薦士]의 측면, ‘사태 판단’[簡默能斷]의 측면, 왕을 잘 보좌하고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한 ‘君臣간 조정 및 소통능력’[善解主怒, 辨理人罪]을 밝히는 세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각 단락마다 구체적인 예화를 두세 가지 배치함으로써 재상이 되어 왕단이 한 일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환히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屬辭比事’法の 含意를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해석의 변천과정은 趙友林, 「《春秋》學中的 ‘屬辭比事’, 중국: 『聊城大學學報』, 2008년 제1기 참조. 한편, 공자가 예초에 『春秋』의 教授法으로 언급한 ‘屬辭比事’법이 후대에 이르러 古文의 문장서사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은 김창협 외에도 宋文欽(1710-1752), 丁若鏞(1762-1836) 등에서 발견된다. 이들 역시 김창협처럼 ‘시간순’으로 된 서사와 구분되는 ‘주제별·항목별’ 글쓰기 방식으로 ‘屬辭比事’법을 이해하고 있다. “「尊攘」編, 伏讀累次矣. 如文欽有何裁識, 可以奉贊者, 而尊命下敦, 苟有愚見, 敢不自悉. 第伏念此編, 若以類聚考閱爲主, 則只當如此, 而略刪煩冗而已. 若如紀事本末, 通成一段文字, 則卻須大加刪修, 使屬辭有脈絡, 紀事有序次.”(宋文欽, 「上陶庵李先生」, 『閒靜堂集』, 종간 225-316); 三日陪歡, 乃在深居清寂之中, 歸而耿顧不敢已也. 樊翁碑文, 已獲脫稿否? 大文字只按年編事, 本末却未具見, 須用屬詞比事之法, 條貫類萃, 方有考驗之用, 義理也, 事業也, 文章也, 德行也, 不用混書而雜學之, 則於綴文, 亦似省力.(丁若鏞, 「上海左書」, 『與猶堂全書』詩文集 第18卷, 종간 281-333)

김창협은 이처럼 「왕문정비」를 예로 들어 ‘편년으로 기술된 사실들을, 일정한 주제의식하에 항목별로 정리 기술’하는 ‘屬辭比事’법의 구체적인 면모를 간명하게 드러낸 후, 만약 왕단이 재상이 된 이후의 事業들을 시간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했다면, 그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어지럽게 착중된 채로 기술되어 독자들이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즉 이 대목에서 김창협은 ‘屬辭比事’법을 거론하며 효과적인 단락 구성의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셈인데, 그것은 곧 시간적 순서로 된 자료들을 관련 주제별로 모아 ‘항목화’하고, 그렇게 분류된 사실들을 ‘총괄’·‘세목’·‘예시’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더욱 명료하게 전달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구양수의 「范公神道碑銘」과 「王公神道碑銘」에 대한 김창협의 실제 비평을 통해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단락 구성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단락 구성’에 관한 김창협의 언술을 구체적인 작문 지침이 되도록 강령화시켜 보이는 것으로 본 장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 첫째. 모든 단락과 문장이 주제를 향하도록 긴밀하게 배치하라.
- 둘째. 주제 전달에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상술하라.
- 셋째.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축소하라.
- 넷째. 주제 전달에 효과적이라면 시간적 구성을 탈피하고 항목별로 기술하라.
- 다섯째. 주제를 뒷받침하는 예화를 삽입해 글의 명료함을 높여라.

5.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김창협의 산문 비평을 분석함을 통해, 그가 직접 말했거나 혹은 그의 비평적 언술을 매개로 추론해 낼 수 있는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과 지침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김창협은 조선 후기 散文史에서 당시까지의 산문 글쓰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인물이다. 물론 김창협의 이전 세대인 許

筠·張維·李植·金錫靑 등에게서 이미 詩와 구별되는 散文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篇章 차원의 作文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문인들의 산문 작법은 여전히 典範의 字句를 활용한 ‘用事’ 차원의 산문 수사학에 치우쳐 있었다. 典範을 암송할 정도로 숙지한 후 典範의 훌륭한 字句를 자신의 문장에 활용하는 ‘用事’의 수사학은 김창협이 지적하고 있듯 산문 글쓰기에서 ‘부정확한 典據 인용’과 ‘模擬’의 폐단을 낳고 있었는데, 그는 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주제’와 ‘구성’을 중시하는 篇章 차원의 散文 글쓰기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다.

司馬遷의 傳과 歐陽脩의 碑誌文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석을 통해, 김창협이 산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提挈綱領”과 “錯綜關節”이었고, 이는 오늘날의 글쓰기에서 보면,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는 김창협이 행한 작품 비평을 분석함으로써 ‘주제 잡기’와 ‘단락 구성’에 관한 김창협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세부적인 강령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들이 작문과정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김창협이 거론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얼마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作文의 객관적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작품 비평을 통해 예시하려는 金昌協의 노력이 이후 『雪橋藝學錄』의 저자 安錫徹(1718-1774)과 文訣의 저자 兪漢雋(1732-1811) 등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고, 멀리는 『文章指南』(1908)·『實地應用作文法』(1909)이라는 작문 교과서를 만든 계몽기 지식인 崔在學에까지 그 淵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典範이 되는 작품을 ‘암송’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作文의 법칙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미 개화기 이전의 고전 산문 작가들 사이에도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글쓰기 전통의 심화와 확산에 대해서는 차후 고전 작가들의 개별 산문 비평을 다룬 別稿를 통해 차례로 밝혀 나가기로 한다.

참고문헌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162, 민족문화추진회.

강명관, 『농암잡지평석』, 소명, 2007.

강혜선, 「金昌協 古文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90.

강혜선, 「조선후기 小品文과 글쓰기 교육: 申靖夏의 尺牘과 편지쓰기」, 『작문연구』 제5집, 2007.

김광년, 「息庵 金錫胄 散文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2003.

김성룡,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창간호, 1997.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3.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 『작문연구』 창간호, 2005

박경남, 「金昌協의 비평을 통해 본 王世貞 散文의 진면목-商販 碑誌文을 중심으로」, 2009년도 한국한문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문, 2009. 12.

朴泳穆, 「作文 研究의 動向과 課題」, 『작문연구』 창간호, 2005.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소명, 2008.

_____, 「쓰기 교육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연구: ‘再現’과 ‘表現’의 발생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6집, 2008.

_____, 「국어교육의 근대적 전환에 대한 연구 서설: 문장 모델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9집, 2005.

설흔·박현찬,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 예담, 2007.

송혁기, 「金昌協 文學論의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96.

_____, 「김창협 비평의 산문사적 의의: ‘法’의 산문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5, 2004

_____,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심경호, 「한문산문 수사법과 현대적 글쓰기」, 『작문연구』 제5집, 2007.

염은열,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 ‘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1996.

유동재, 「<文訣>의 創作論과 그 文論史的 意義」, 『한국한문학회연구』 38, 한국한문학회, 2006.

이지호, 「燕巖 朴趾源의 글쓰기 方法論 研究: 《熱河日記》의 대상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정경훈, 農巖 金昌協의 古文研究: 碑誌文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정우봉, 「朝鮮後期 散文理論의 展開와 그 性格(1)-16세기 말-17세기 초 중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2000 참조.
- _____, 『《雪橋藝學錄》의 散文修辭學 研究』, 『한국한문학연구』 제32집, 2003
- _____, 「漢文修辭學 연구의 한 방법: 主客法의 이론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49집, 2004.
- 조종업, 「농암시문연구」, 『민태식박사 고회기념 유교학논총』, 1972.
-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조선 세종조 과거 시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2.
- 채환중, 「農巖 金昌協 文學研究」, 忠南大 박사논문, 1994.
- 최귀묵, 「金時習 글쓰기 방법의 사상적 근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_____,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소명, 2001.
- 하지영, 「擬古·創新 논리와 표절 의미의 변모 양상: 前後七子의 의고론을 중심으로」, 『표절: 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 趙友林, 「《春秋》學中的‘屬辭比事」, 중국: 『聊城大學學報』, 2008년 제1기.

The Study of writing method perceived through
Kim, Chang-hyup(金昌協)'s prose criticism

Park, Kyeong-nam

This essay is to review Kim, Chang-hyup(金昌協)'s prose criticism, and through that, to devise some specific writing guidelines which is useful to today's composition curriculum. Kim, Chang-hyup(金昌協), as a distinguished scholar and a good writer in 17th Joseon Dynasty, criticized an imitative writing custom called Yongsu(用事), and advanced an alternative methods considering prose writing characteristics.

The Yongsu(用事) is a method of conventional composition that quotes or modifies former text in expressions level, for using it, the common writers in the Joseon Dynasty must memorize a great many phrase and sentence in various classics. Kim, Chang-hyup(金昌協) thought that the writing based on Yongsu(用事) made a lot of mistake when quote former classical text, and had been attended by evil effects of imitation. So he roundly criticized the imitative writing custom and raised a writing methods which is suitable for the prose itself. He suggested that the prose writer had to learn the method on 'fixing a central themes' and 'arranging paragraphs', not imitating the expression of it from a great work, especially the Sagi(史記) which had been become a canon in the history of prose writing.

By analyzing his literary criticism about several classical prose work writtin by Kim, Chang-hyup(金昌協), I set before each five detailed guidelines on 'fixing a subject' and 'composing paragraphs' at this essay, and had in place an available guidelines nowadays which is applying the classic literary criticism at the same time.

Keywords: Kim, Chang-hyup(金昌協), writing method, writing guidelines, fixing a subject, composing paragraphs, the Sagi(史記)

접수일자: 2010. 3. 10
심사기간: 2010. 3. 10~2010. 5. 20
게재결정: 2010. 5. 20